

월급 노동자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모두 제외키로 5인 미만 일자리안정자금 13만→15만원

그간 관행으로 자리잡아온 법정 주휴시간이 내년부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포함된다. 다만 노사가 합의해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계산에서 빠진다.

또 고연봉 노동자가 낮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여금 지급주기를 월 단위로 바꾸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시급 산정을 위한 산정방식에 주휴시간은 들어가고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토록 하고 통상 한 주에 15시간(하루 3시간) 이상 일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8시간)를 주휴일로 해석, 유급휴일을

주도록 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이어진 법정 수당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휴수당 추가 부담이 아닌 이차법적으로 규정된 주휴시간과 수당을 모두 월급의 지급 환산 때 포함하는 게 골자다.

앞서 국회는 5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종류를 기본급과 상여금, 복리후생비(분자)로 늘렸다. 관건은 시급으로 나눌 때 산정하는 노동시간(분모)이었다. 재계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 근로시간인 174시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분자에 포함된 만큼 월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을 받아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경영계 주장대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최저임

금을 계산하면 145만2900원(8350원×174시간)만 지급해도 최저임금을 지키게 돼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16.7%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약정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법으로 지급을 강요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약정휴일에 관련해선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미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산업현장에서는 월환산액 결정 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부터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병기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현장 등에 관행이 형성돼 있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매년 월 환산액 변경 의결 시 경총 등 사용자 단체도 참석해 이를 공유하고 동의한 상태다.

아울러 올해에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고연봉 노동자임에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기본급이 전체 급여

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취업규칙을 통해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닌 만큼 노동자 과반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뒀다.

정부는 개정 취지를 반영해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위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올해에도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올해처럼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되,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씩 추가된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 120%)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도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지난해 수출 6055억 달러... 사상 최대 실적

지난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인 60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주력시장과 신남방 등에서 최대 수출을 실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년동기대비 5.5% 늘어난 6054억7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무역역도 1조1404억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역대 수출액 2위는 2017년 5737억 달러였다. 이어 3위는 2014년 5727억 달러, 4위는 2013년 5596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과 미국 등 주력시장과 아세안, 베트남, 인도 등 신남방에서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미국(727억5000만 달러, 6.0%), 중국(1622억4000만 달러, 14.2%), 아세안(1002억8000만 달러, 5.3%), 베트남(486억3000만 달러, 1.8%), 인도(156억2000만 달러, 3.7%)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입은 5349억9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704억9000만 달러로 10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편 1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한 484억6000만 달러, 수입은 0.9% 증가한 439억1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45억6000만 달러로 83개월 연속 흑자를 시현했다.

/김영태 기자

지난해 세계증시 곤두박질... "시장에 비관적 분위기"

지난해 미국 뉴욕증시는 물론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증시는 2011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연초 대비 5.6%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6.2%나 떨어졌다. 나스닥도 3.9%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실적이다.

미 증시는 올 여름까지만 해도 수차례에 걸쳐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해왔다. 그러나 10월 초부터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12월에 들어서는 당초 상승분을 모두 잃고 하락장세인 베어마켓으로 반전됐다. 10

년 만기 재무부 채권 금리는 2.68%로 떨어져 채권 가격은 상승했다.

3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증시를 광범위하게 보여주는 스톡스(Stoxx)유럽 600지수는 15%, 영국 FTSE 100지수도 13%, FTSE 올월드지수는 11.5% 떨어져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해를 기록했다.

일본닛케이지수도 12% 곤두박질 쳤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5%나 하락했고, 홍콩 항셱지수도 14% 떨어져 지난 2011년 이후 최악의 해를 기록했다. MSCI 아시아·태평양지수 역시 고점 대비 22% 하락해 2011년 이후 최악의 해를 기록했다. 올해 아시아 증시는 급등과 급락을 함께 경험하면서 시장 가치가 5조2000억 달러나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농협사료 전북지사 나눔 축산 운동 펼쳐

김제지역에 성금·장학금 전달

농협사료 전북지사(지사장 최현규)는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도내 자선 단체, 농촌마을 초등학교를 찾아가 결손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최근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김제지역 불우어린이를 돕기 위해 자선단체인 '조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부'에 300여만원을 후원하고 같은 날 김제시 백산면에 위치한 중정초등학교 최모교장에게 학생 6명에게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장학금 30여만원씩과 묵우촌 햄을 전달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최현규 농협사료 전북지사장은 "관내에는 열심히 화업을 이어나가는 학생들이 많다"며, "성금전달은 앞으로도 매년 정례화 하여 범농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눔 축산 운동'을 더욱 알차고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성공적인 취업 준비 가능토록 실천 로드맵 수립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도내 대학생 40여명 대상 JB 커리어 캠프 펼쳐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최근 전북은행 연수원에서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는 도내 대학생 1, 2학년들 40여명을 대상, '제7회 2018 JB 커리어 캠프'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JB 커리어 캠프는 취업 로드맵과 비전설정, 프레지더 강점진단, 셀프 브랜딩 기법과 청년사업가 육육결즈 박예나 대표의 창업 성공기, 現 MBC 이충훈 아나운서의 '말하기 특강' 등 대학생들의 진로,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전병찬 전북은행 부행장의 특강, 인사 담당 팀장과의 Q&A, 전북은행의 핵심부서, 자점에서 근무하는 취업 선배와의 대화,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의 전문가와 창업을 꿈꾸는 새내기들을 위한 특강이 마련됐다.

김영구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최근 전북은행 연수원에서 도내 대학생 1, 2학년들 40여명을 대상으로 '제7회 2018 JB 커리어 캠프'를 열었다.

이사장은 "도내 대학생들이 어려운 취업난을 극복하고 목표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시작된 JB 커리어(career) 캠프는 현재까지 30

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에서는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부, 연말연시 철새 증가 AI 특별방역 추진

서식지 출입통제·소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이달 11일까지 '연말연시 조류 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의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철새조사 결과, 지난해 동기(108만 마리)보다 24만 마리가 증가한 132만 마리가 서식,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AI 방역점검 영상회의 개최를 매주 1회(월 2회→월 4회)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 방역추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자체 방역실태 등을 점검하고 기러기·거위 등 특수가금과 소규모 농장(가든형 식당)의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AI 발생시 즉각 현장 투입될 AI 특

별기동방역단은 5개 시·도(각 1개 시·군 선정)에서 초동대응 태세를 사전에 점검토록 했다.

연말연시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소독 강화 조치와 함께 서식지 출입·먹이주기 자제 홍보, 농가·방역관계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영상·책자 홍보물 제작·배포했다. 특히 동영상 홍보물은 AI 긴급행동요령 내용을 농장용과 방역담당자용으로 각각 구분해 총 42편을 제작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 대상으로 연말연시 기간 중 농장 방문 축산차량 소독 철저 등 청소·소독 철저 등을 당부했다"며 "지자체에는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등 관련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소독시설의 통과방지, 소독약 희석배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